

고창복지관, 어르신께 삼계탕 공양

27일 영양보호사 취업지원센터 개소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 스님)은 복합을 맞아 지역 어르신에게 삼계탕을 제공했다. 고창군노인복지관(관장 무공·운영위원장 법만)은 7월 24일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중복을 맞아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을 초청해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삼계탕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식사 후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사들로 구성된 에버그린 밴드의 연주회도 열렸다.

무공 스님은 “복지관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르신들에게 뜨거운 삼계탕 국물을 타고 마음속까지 시원함으로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어르신들에게 제공된 삼계탕용 닭 350마리는 해솔리치킨으로 유명한 성화식품대표 이승준에서 후원했다.

이어 복지관은 27일,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공 스님과 직원, 영양보호사 교육생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영양보호사 취업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번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도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2009년 지역고용특화사업에 선정된 결과로, 고창지역 내 실직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 및 취업이 연계된 ONE-STOP 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진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미륵사지 사리친견 회향

7월 26일 회향법회... 문화복지연대, 달오름음악회 개최



7월 26일 열린 익산 미륵사지유물 전시회향법회(왼쪽)와 25일 열린 달오름음악회.

6월 27일부터 한달간 진행된 부처님 진신사리 및 사리장엄 친견법회가 원만하게 회향했다.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우성, 백운사 주지)는 사리친견법회 일정이 마무리된 7월 26일 익산미륵사지유물 전시관에서 스님과 불자 등 1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사리친견이 이뤄진 지난 한달간 전국에서 연인원 약 10만여 명이 미륵사지를 찾아 1400년전 백제인의 불심을 마음으로 느끼고 돌아갔다. 전시됐던 사리장엄은 문화재 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거치게 된다.

익산사암연합회 회장 우성 스님은 “그동안 전국에서 오신 스님과 불자들이 노고가 많았다”며 “부처님 사리는 탐이 복원되면 다시 원래의 자리에 봉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화복지연대(대표 장용철)는 25일 ‘익산 미륵사지 달오름음악회’를 개최했다. ‘I Love Temple 제 5회 전국 폐사지 투어’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음악회에는 2000여 시민들이 참석해

익산 미륵사지탑 모형 점등공연, 대중가수 안치환, 국악인 박애리, 오느름민족음악관현악단, 타악퍼포먼스 야단법석, 비비이 캄블러팀이 출연하는 음악회를 즐겼다. 문화복지연대의 폐사지 투어콘서트는 역사와 문화유산적 가치가 뛰어난 폐사지가 더 이상 도난, 도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뿐 아니라 소중하고 올바르게 보존되어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 국민대상 폐사지 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익산 미륵사지 공연은 다섯 번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신 위원은 전주지역 포교사 모임인 법륜회장과 김제 귀신사 신도회장을 역임했지만 단상 위에 앉기 보다는 단상 아래 보이지 않는 곳을 즐긴다. 묵히 자기 할 일만 하는 숨은 봉사자가 바로 신병균 거사이다. 신병균 거사는 항상 연장주머니를 허리춤에 차고 작업인부와 같은 모습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주변을 살피며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는지를 꼼꼼히 살핀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깔끔하게 뒷정리해 전주시 관계자들 사이에 ‘불교가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칭찬을 듣는 것도 바로 신 거사의 보이지 않는 손길 덕이다. 신 거사는 어머니 등에 업혀 절에 드나들지 벌써 70년이 넘었다. 젊은 시절, 다니는 사찰의 송사에 발벗고 나서 삼보장재를 지켜내기도 했고 인근 건설현장의 발파작업으로 법당건물이 위기에 빠진 것을 송사를 통해 배상을 받아 낸 것도 신병균 거사였다. 평소 존경하는 청화 스님을 뵈러 김제 귀신사로 가게된 것이 인연이 돼 귀신사 신도회장까지 맡게 된 신 거사는 영산전 불사 당시 집 한 채가 넘는 돈을 남몰래 시주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주 송광사 백련지 ‘인기’

전북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가 작년부터 조성한 연지(蓮池)가 올해 들어 화려한 자태를 뽐내기 시작하면서 전북의 연꽃 명소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다. 6000여 평의 규모로 조성된 연지는 옛 송광사의 사명인 백련사에서 유래된 백련지이라는 정자를 준공한데 이어 백련지라 명명됐다. 송광사 백련지에서는 흥련, 백련, 황련, 홍백련, 청백련 등 다양한 연꽃을 감상할 수 있다. 도영 스님은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고 마음을

다우며 미래를 계획하며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백련지를 조성했다”며 “일제강점기 연꽃처럼 순수한 영혼을 간직하고 입심으로 송광사가 수행의 터, 깨침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송광사는 8월 22일 송광사 백련지에서 인기가수 정태춘, 신형원, 강산애, 가아랑 등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 ‘당신에게 연꽃향기를 전해드립니다’를 개최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오르아세 음악회 ‘또다른 나 발견한’ 귀한 시간 금산사, 일반인 대상 선수련회 성황

부안 해원사주지 정원은 7월 25일 한오르아세 음악회(한국식오카리나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개최했다. 완주 송광사 도영 스님, 선운사 법만 스님, 기화국장 종고 스님, 김호수 부안군수 등 500여 부안군민들이 참석한 행사는, 산사에서 영혼을 일깨우는 맑고 아름다운 오카리나 연주를 즐겼다.

전국에서 모인 김준모씨를 비롯한 한국식 오카리나 회원들이 ‘연꽃피어오르기’ ‘여행을 떠나요’ 등 20여곡을 아련나래 앙상블, 한오르아세 앙상블이 아름다운 휴피리소리를 선사했다.

정원 스님은 “휴피리의 아름다운 음들과 함께 한국식 오카리나로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을 기원한다”고 환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선 나를 깨치다’ 수행 프로그램이 7월 20-26일 금산사 경내 서래선원에서 진행됐다. 간단한 사찰예법과 ‘수행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진에 들어간 수행자들은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자신의 수행의지를 다짐하는 예불, 스님으로부터 바른 호흡법과 좌선, 하심을 일으키는 108배, 명상, 간경, 고성염불, 김기명상 등의 집중 수행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회두속에 또다른 자기자신을 발견하는 계기를 가졌다. 특히 마지막날에는 3000배 정진 옹골정진을 회향하고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으로부터 미륵십선계를 수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템플스테이 정면.

여름 불교학교를 8월 14-17일에는 ‘선 나를 깨치다’를 진행한다. 한편, 김제시청 불자들의 모임인 연우회(회장 김중규)는 7월 24-25일 김제 금산사에서 철야정진법회를 봉행했다.

30여 회원이 동참한 이날 철야정진은 옴마니반메훈 만트라 108배, 방등계단 탑돌이 촛불의식, 발우공양, 참선을 통해 신심을 다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 동국사, 다문화 가정 돕기 성금

군산 동국사(주지 종명) 불자들은 7월 24일 군산시청에서 108배로 마련한 성금을 다문화 가정에 전달했다. 조계종 자비나눔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1배 100원씩 108배를 통해 마련한 성금 230만원은 수솔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쉼터조이비씨(필리핀)와 춘부스틴씨(캄보디아) 아들 조백호군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전달했고, 농어인협회 군산

지부에 30만원 기탁했다. 동국사 총무 종결 스님은 “작은 금액이지만 지역의 소외 계층에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성금은 전국 조계종 사찰 신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백팔배를 통해 조성한 모금액으로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마음을 전하고자 해마다 소외계층 의료비, 긴급생활비 등을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처님 일천 팔십분의 이름과 복장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전

국내 초유일의 **부상감청자투각佛 법륜대(운장대) 완결봉안 해**

동참접수 : 2009년 5월~ 9월 5일 | 정안식 : 2009년 9월 6일(일) 오전 10시 50분
 도동산 성불사 ☎ 954-9848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시 청오 합장 =

실용신안특허허가기술

복장용 소경책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사원을 이루소서

□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상림청자
 □ 높 이 : 110cm
 □ 원통폭 : 45cm
 □ 밑받침폭 : 30cm
 □ 무 게 : 25kg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현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식)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형 소법문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